

국외출장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일본 노후소득보장제도 연구를 위한 기관방문, 아시아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 변화 탐색을 위한 학술대회 참석과 발표
- 출장지: 일본(동경), 스위스(제네바)
- 일정: 2017.6.29~7.7
- 관련 과제: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2. 주요 활동

- 일본 사회보장제도와 빈곤 연구자 면담

- Komamura Kouhei(Keio University)

- 일본의 연금제도는 1층 국민연금, 2층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역세대는 모두 국민연금 피보험자이며 은퇴 후 1층 부분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 민간근로자와 공무원은 기초연금 외에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이라는 2층 부분의 소득비례연금을 받음.
- 공적연금 미가입 혹은 저연금 수급 예상자는 233만 명으로 공적연금 가입대상자의 3.5%에 해당함.
- 일본 기초연금의 보장범위가 한국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넓고 급여수준이 높음. 한국은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을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수급대상은 일본의 97%에 비해 70% 수준으로 낮고, 평균 급여수준은 일본의 35% 이하임.
- 일본 제도의 특징은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민간근로자, 공무원, 자영업자 등으로 분립되어 있던 공적연금 제도에 공통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이며, 이로써 제도별 가입자간 연금 불공평 해소.
- 무소득 배우자(제3호 피보험자)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을 허용함으로써 맞벌이와

외벌이 부부의 은퇴기 연금 격차를 줄임.

- 1985년 개혁으로 피용자 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으로 구분하여 제도 간 통합의 기반을 구축하고, 단계적 준비 작업을 거쳐 30년 후 두 제도를 통합.

- 개혁조치로 모든 공적연금이 100년 후 시점에도 특단의 정부 재정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고령화, 장수화, 낮은 출산율에 대비하는 과정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김명중(일본생명기초연구소)

- 일본 노후소득 관련 일본 노동시장 현황에 대한 브리핑
 - 최근 청년층의 실업율이 감소하는 상황
 - 저출산과 인구감소와 고령화, 이로 인한 청년층과 핵심근로연령층의 실업율이 감소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65세이상 노인연령층의 인구구성비는 급속도로 높아진 상황. 노인연령층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노인연령층에 대한 사회보장 및 의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최근 아베 정부에서 과도한 국가채무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음. 성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내부의 논쟁이 있음.
- 동일임금, 동일노동 정책이나 여성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일본의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기업문화의 전제였던 종업원의 동질성은 점차 붕괴되어 가고 있음. 종신고용은 점점 줄어드는 대신 파트타임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고용자가 증가.
 -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증가하면서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추진이 중요시되고 고령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보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남성정규직근로자 중심의 장시간근무를 수정할 필요가 있게 됨.
 - 경영자가 과감히 기업문화를 개선한 기업은 시장에서 수익성이 개선된 반면, 기존의 상명하복식의 기업문화를 고집한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

게 된 일본기업의 사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다양한 고용형태의 증가가 미래 노인세대의 노후소득에 미칠 영향을 각 나라의 제도에 기반해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함. 한국과 일본의 경제활동조사를 이용해 거시적으로 분석할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일본 가구패널과 한국 복지패널을 이용해 미시분석을 진행할 것에 대해 논의

○ Isamu Yamamoto(Keio University)

- 본 연구를 위해서는 일본 가구패널이 가장 적당한 연구라고 생각됨. 일본은 한국에 비해 데이터 접근성이 매우 낮음.
-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패널인 가계경제연구소 패널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패널이라는 제약이 있음.
- 일본 가구패널은 한국의 복지패널과 상당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함.
- 샘플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아 데이터분석의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나, 최근 가중치를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므로 이를 보완할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일본 가구패널은 한국 복지패널보다 더욱 자세한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근로개월수, 공적연금 가입여부, 가입액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가중치가 보완될 경우 좋은 분석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함.

□ Regulating for Decent Work 2017 참석 및 발표

○ 학술대회 개요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는 좋은 일자리의 확대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개발과 경험의 확산을 위해 RDW conference를 2년마다 개최
- 2017년은 5번째 대회로 미래의 노동이 직면한 핵심적 문제를 주로 다루었는데, 그 구체적 주제는 아래와 같은 4가지임
 - 첫째, 일과 사회

- 둘째,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와 일자의 특성
 - 셋째, 일과 생산 방식의 변화: 양질의 일자에 대한 도전
 - 넷째, 노동의 거버넌스: 노동규제의 복잡한 미래
- 학술대회는 2017.7.3.-5의 3일간 ILO 본부(제네바)에서 개최
- 일정별 발표주제는 별첨자료 참조
- 학술대회 관련 기타 상세한 내용 및 발표 논문은 www.rdw-conference.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발표의 내용

- 김현경(사회보장실 부연구위원)은 ‘일과 사회’라는 주제로 구성된 세션에서 “Social Protection Systems for Working-poor Families in Japan and South Korea(김현경, 노대명)”라는 주제로 발표
-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를 비교하여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음.
 - 한국과 일본의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를 실업급여와 공공부조, 그 사이의 아동수당과 구직자보조(일본) 또는 양육비보조/근로장려금/취업성공패키지(한국)로 구성하여 비교. 일본 실업급여의 높은 보장성과 공공부조의 높은 급여액, 현금으로 제공되는 아동수당에 주목.
- 한국의 복지패널과 일본의 가구패널을 이용하여 각 제도의 수급자가 실직 또는 근로기간 감소 등의 위기에 닥쳤을 때 경험하는 소득변화, 이로 인한 빈곤지위 변화, 지출행태 변화를 비교함.
 - 분석결과, 일본 수급가구의 빈곤진입이 비수급가구에 비해 낮고, 수급가구의 빈곤율이 한국의 그것보다 낮은 경향이 있음. 또한 빈곤진입이라는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지출은 등락이 크지 않은 반면, 한국은 필수재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음. 이를 제도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가.
- 일본의 아동수당이 아동빈곤이 높은 일본 상황에 주효하게 작용하여 수급가구의 빈곤율을 저하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임.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급증이라는 환경에 직면한 상태에서 실업보험 제도의 대응도 중요하

지만, 취업상태와 무관한 가족수당의 활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발표원고는 별첨자료 참조

○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통해 본 주요 연구동향

- 디지털 경제로 인한 작업방식의 변화, 노동의 성격 변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 다학제적인 교류가 있었음. 이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하는 추세이나 이로 인한 노동의 변화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바임.
- 전체 세션에서 핀란드에서 실시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함.
-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지만 영시간 계약(zero-hour contract) 등 유연한 노동시간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대단히 높음. 일과 가정의 균형과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배상황과 법제도의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결과와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관련 논의들과 그 배경이 되는 노동환경의 변화가 한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임.

※ 별첨 1. RDW 2017의 프로그램

※ 별첨 2. 김현경(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노대명(글로벌사회정책연구센터장)의 발표 원고

※ 별첨 3. 김현경, 노대명의 발표문